
성산일출봉 주변환경 및 활성화 해외사례조사 보고

- 2010.10. -

환경지역계획팀 이 성 용

Ⅰ. 조사 개요

1. 목적

- 세계자연유산이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들과 공원관리기법을 견학/자료 수집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함
- 따라서 호주의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고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고, 자원관리 및 방문객 관리 기법 등을 확인코자 함

2. 일정 및 대상

- 조사기간 : 2010.10.5(화) ~ 10.12(화), (6박 8일)
- 조사지 : 호주 브리즈번, 시드니, 멜버른
- 조사자 : 환경지역계획팀 이성용 연구위원, 김태운 연구실장

3. 방문지역

- 브리즈번
 - 브리즈베인(South Bank Parkland)
 - 골드코스트
- 시드니
 - 블루마운틴,
 - 갭파크(Gap Park)
- 시드니
 - 그레이트오션로드
 - 12사도상(The twelve Apostles)

II. 조사 주요내용

1. 호주(Australia)

□ 개 요

- 수 도 : 캔버라(Canberra, 인구 31만명)
- 면 적 : 7,682,300km²(한반도의 약 25배)
- 인 구 : 1,830만명
- 민 족 : 영국계(80%), 유럽 및 아시아계(18%), 원주민(2%)
- 언 어 : 영어
- 종 교 : 기독교(73%), 무교(25%), 불교·이슬람교·유대교(2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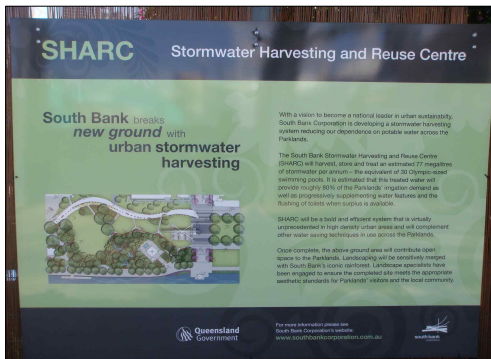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호주의 주요 도시 위치도

2. 주요방문지역 및 현장조사

1) 브리스베인 시민공원(South Bank Parkland)

□ 개요

- 브리스베인은 퀸스랜드주의 주도로서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은 아열대성 기후로 여름에는 최고 기온이 29이고, 겨울에도 최저 기온이 10도로 내려가지 않아 연중 온화한 곳임
- 르네상스 풍의 역사적인 건물과 현대식 빌딩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임. 1988년에 엑스포가 열렸던 South Bank Parkland는 브리스베인 시민들이 가장 아끼고, 즐겨 찾는 공원임



▶ 공원내 안내판



▶ 공원내 조성된 인공 해변

- 공원에는 인공해변, 박물관, 레스토랑, 열대우림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비롯해, 박물관.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연극, 오페라, 뮤지컬, 발레 등의 공연이 수시로 개최되는 콘서트 홀과 극장이 있는 공연예술관, 주립도서관 등이 갖추어져 있음



▶ 공원내 보행우선표지판



▶ 공원내 표지판

□ 브리즈번 강의 페리

- 브리즈번 강을 이동하는 수단으로는 ferry와 city cat이 있음. 이 ferry와 city cat의 경우 공공교통수단으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적자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음
-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이곳의 ferry와 city cat을 사례로 한강에 수상택시 (water taxi)를 도입하였다고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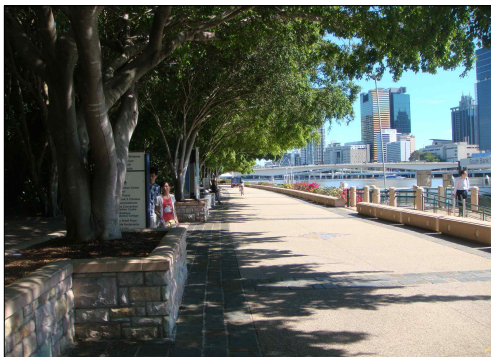
▶ 수상페리 정류장



▶ CITY CAT 운행 모습

■ 시사점

- 호주는 풍족하고 국가의 재원이 많은 곳으로 공공서비스의 경우 적자 운영이라도 시민의 편의가 우선임. 가용할 토지가 많고 공원이 많고 공원내 시설물이 이용자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었음
- 공원내는 원칙으로 차량을 배제하고 보행 및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애하고 있음. 공원시설물들은 획일적이지 않은 통일성을 가지며 기능성도 동시에 갖추고 있음



▶ 공원내 노면 및 모습



▶ 공원내 시설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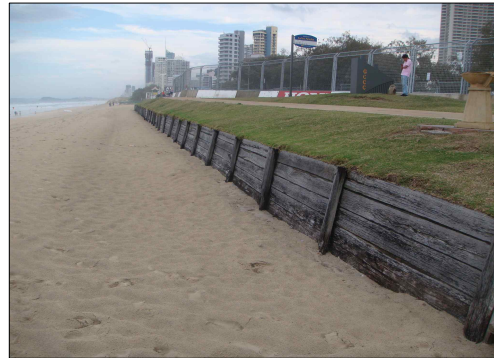
2) 골드코스트(Gold Coast)

□ 골드코스트 개요

-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의 남부해안에서 퍼시픽 고속도로를 따라 파라다이스포인트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주 경계의 쿨랑가타까지 40km에 걸쳐 있는 도시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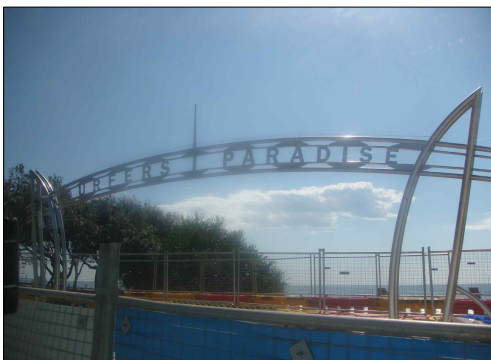
▶ 골드코스트 해변 전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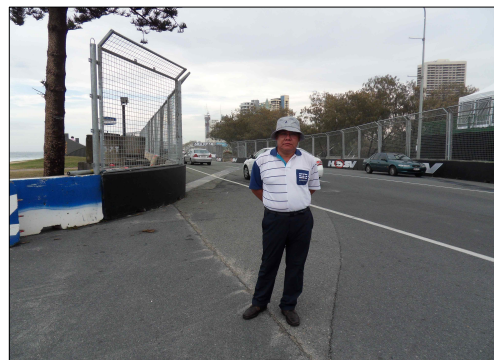
▶ 자연친화형 축대

□ 골드코스트

- 골드코스트는 ‘서퍼스 파라다이스’ 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면서 해양스포츠로 각광을 받는 곳임. 특히 서핑, 요트경기, 수상스키, 다이빙 등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곳임
- F3자동차 경주대회가 2010년 3월 28일 멜버른 앨버트파크 그랑프리 서킷에서 열렸고, 매년 개최되는 F3 경주대회는 자연스럽게 전세계에 골드코스트를 홍보하고 있음



▶ 골드코스트 입구아치



▶ F3경주로(기존도로 경주에 이용)

■ 시사점

-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, 지역이 가진 강점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음. 이곳은 서핑의 천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양스포츠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음
- 새로운 볼거리나 인공적인 구조물 창조에 중심을 둘것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을 성산일출봉 마을 활성화에도 참조하여야 할 것임



▶ 안내판



▶ 서핑을 준비중인 사람



▶ 노면 유료주차장



▶ 무인주차요금계산기



▶ 음수대

3) 블루마운틴(BLUE MT.)

□ 블루마운틴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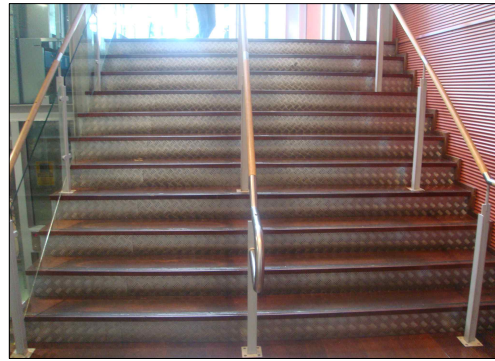
-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, 주말 등산이나 1일 관광코스로 유명함. 시드니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며 세자매 바위, 경사 50도의 관광 궤도 열차, 케이블카 폭포 관광 및 산림욕을 즐길 수 있음

□ 블루마운틴의 유래

- 약 1,000m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햇빛에 어우러져 빔어내는 푸른 안개 현상으로 블루 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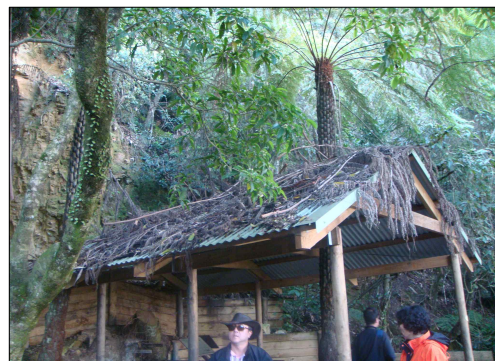
▶ 코스별 안내판



▶ 탐방객 동선 분리



▶ 탐방객 계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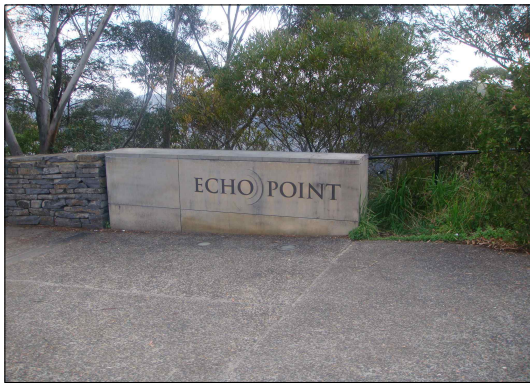
▶ 기존의 나무를 살린 건축물

□ 에코 포인트(Echo Point)

- 블루마운틴 일대에 형성된 산악지대를 일컫는 말로 호주의 그랜드 캐년

이라고 불리움

- 카툼바 역으로부터 남쪽으로 걸어서 20분정도 걸리는 곳이며,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고 있음. 짙은 원시림을 배경으로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, 멀리서 블루마운틴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여기에서 세자매 봉우리(The Three Sisters)의 기암이나 재미슨 밸리(Jamison's Valley)의 숲을 볼 수 있음



▶ 에코포인트 안내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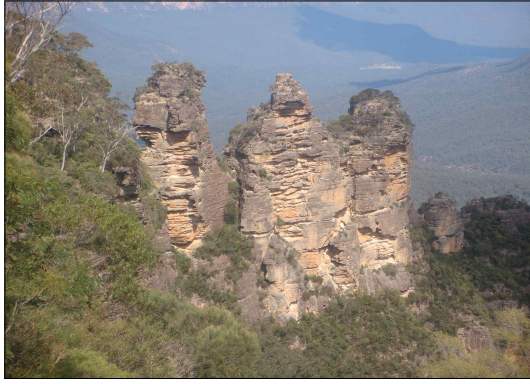
▶ 에코포인트내 조형물

*** 세자매 봉우리 전설**

에코포인트에 아름다운 세자매가 살고 있었는데, 이들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마왕이 세자매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한다.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세자매는 주술사를 찾아가 잠깐 동안만 바위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.

주술사는 이들 세자매의 간청을 받아들여 세개의 바위로 만들어 주었지만,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왕은 주술사를 죽여 버렸다. 그래서 세자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한채 현재까지 바위로 남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.

-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남성적이라면 이곳의 블루마운틴 에코포인트에서 바라보는 전경은 여성적이라 할 수 있음
- 에코포인트 전망대 주변에는 탐방객들이 자유롭게 블루마운틴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전망데크가 설치되어 있음. 탐방은 전망대 주위에서 산의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호주원주민(애버리지니)이 나와서 고유한 악기를 연주하며, 원하는 사람들은 원주민과 함께 사진촬영도 할 수 있음



▶ 세자매봉 전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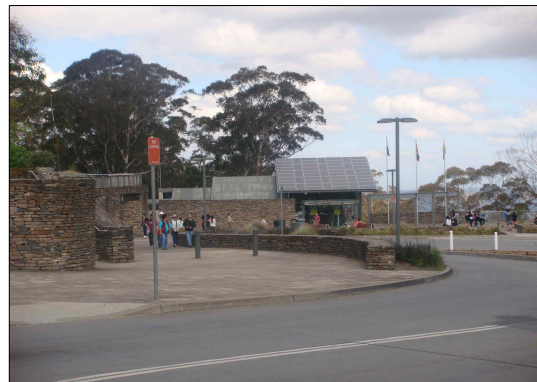
▶ 블루마운틴 전경 및 조망데크

■ 시사점

- 에코포인트와 같이 원거리에서 조망가능한 지점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. 즉 성산일출봉의 경우도 원거리에서 조망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
- 예를 들어 우도나 섬지코지 등에 에코포인트와 같은 지점을 설치하여 원거리에서 성산일출봉을 조망하게 하고 성산 일원에 체류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줄 필요가 있음



▶ 안내판



▶ 탐방안내소

4) 갭팍(Gap Park)

□ 개요

- 시드니 외곽인 Watsons bay에 위치한 곳으로 절벽틈새로 보이는 멋진 바다경치가 좋아 높여진 이름이 Gap Park임
- 약 100m 높이의 절벽이 자연스럽게 탐방객들의 눈을 끄는 곳임. 이곳은 개척시대에 노동과 가난함, 고독에 절망한 사람들이 자살한 곳으로 유명한 공원임. 이 절벽을 따라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책이 둘러쳐 있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있음



▶ 갭 팍의 기암절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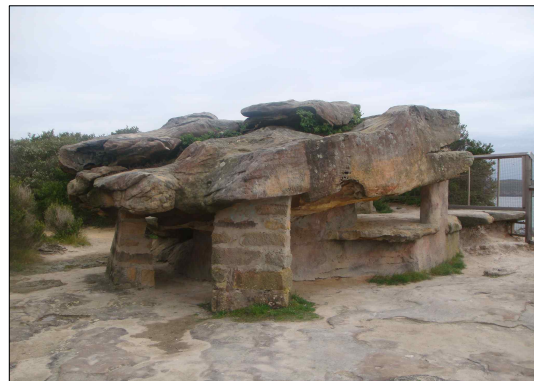


▶ 자살방지 안내판

- 곳곳에 과거의 포진지가 남아 있어 전략적 요충지였음도 보여주고 있고, 호주사람들은 바다전망을 가치있게 생각하여 주변에 고급 단독주택이 조성되어 있음



▶ 갭 팍내 조형물



▶ 자연지형을 이용한 포진지

- 전 세계인에게 잘 알려진 영화 ‘빠빠용’의 배경이 되었던 절벽이 바로 이곳임



▶ 관문의 역할을 하는 갯팍(1.2Km)



▶ 갯팍에 둘러쳐진 방책

■ 시사점

- 이곳이 호주가 개척시대였던 시기에 피와 땀이 기억되는 곳으로 성산일출봉 외연부에 있는 진지동굴이 떠올랐고 이러한 아픔의 역사도 후세에 알려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
- 성산일출봉을 섭지코지나 우도에서 바라본다면 이곳에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했음



▶ 갯팍 주변의 고급주택지



▶ 갯팍 주변의 고급주택지

5) 그레이트 오션로드와 12사도 바위

□ 유래

- 질롱 근교인 토키(Torquay)에서 와남불(Warrnambool)까지 약 214km.임. 세계1차대전 후 귀향한 군인들의 노동력과 재취업을 위해 착공된 이 도로는 완공에만 13년이 걸렸다고 함
- 또한 그레이트 오션로드를 지나가면 12사도상(The twelve Apostles)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조각품을 만날 수 있음. 12사도상은 수천, 수만년 동안 거친 파도와 바람으로 육지와 분리된 거대한 바위임



▶ 그레이트오션로드 상징게이트



▶ 그레이트오션로드 공사 기념물



▶ 12사도상(사암이라 침식 진행중)



▶ 사암층 해안이 만든 절경

□ 주요내용

- 12사도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이곳의 과거 주차장이 해안에 가까워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해안변에서 떨어진곳으로 이

전한 곳임

- 탐방로를 따라 관람하는 것 외에 주변 농가의 헬기 등을 이용한 10분코스의 헬기관광도 이루어지고 있음



▶ 12사도 안내판



▶ 12사도 가는길



▶ 탐방코스내 위험안내판(사암층)



▶ 탐방로 조성시 데크형태로 조성

■ 시사점

- 이곳도 역시 멀리서 12사도상을 조망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배치하였고, 헬기를 이용한 공중에서 탐방 등 다양한 탐방형태를 제공하고 있었음
- 성산일출봉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일출봉 정상까지 올라가는 탐방형태 뿐만 아니라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탐방지점의 신규 조성 및 헬기탐방 및 해상의 유람선 등 탐방의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할것임
- 성산일출봉 주차장의 경우 성산일출봉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전을 할 것이며 대신에 성산일출봉의 경관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경관축을 조성해주어야 할 것임

- 성산일출봉에도 일출봉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게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징가로 진입부에 설치를 고려함



▶ 탐방객 주차장(자연친화형)



▶ 주차장진입시 안내 판



▶ 헬기탐방에 이용되는 헬기



▶ 헬시탐방 안내 판